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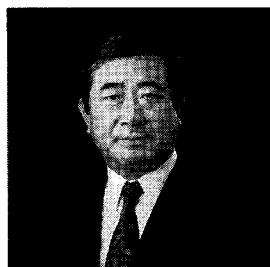
제일합섬 등 4개 업체 신규회원 가입 사업활성화 및 업계 발전 제고 기대

사단법인 한국포장협회(회장 한용교)는 협회의 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고 명실상부한 포장업계의 대표적인 단체로 발돋움해 나가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신규 회원사를 대폭 늘려 나가기로 했다.

그결과 최근 제일합섬(주)을 비롯하여 (주)신흥화공, 우신산업사, 태광산업(주) 등 4개사가 새로 협회 회원사로 가입되었다.

협회는 앞으로도 회원사 확대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 기존 연포장업체 위주의 회원사 구성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분야의 회원업체를 망라해 나갈 계획이다. (회원사 가입문의: 780-9782)

제일합섬(주)



▲ 제일합섬 박홍기 대표

제일합섬주식회사(대표 박홍기)는 1972년에 설립, 합섬섬유산업의 선두주자로서 그 첫발을 내딛고 국내 최초로 폴리에스터 레이온 혼방직물을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그 뒤 폴리에스터 원면공장을 준공하고 종합 섬유회사로 발돋움해 나갔다.

80년대에 이르러서는 폴리에스터 베이스 필름을 독자 개발한데 이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스펜덱스, 스펜본드 등을 생산함으로써 고분자소재로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갔다. 90년대에는 염색가공 기술을 바탕으로 한 패션산업과 첨단기술의 장치산업으로 고품질의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또한 축적된 기술을 토대로 해외 기술협작 등 국제화를 전개해 인도로의 플랜트 수출, 인도네시아 현지 공장 건설 등 세계 속의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생산제품으로 섬유사업 분야에서 폴리에스터 원면, 원사, 그리고 직물은 물론 스펜덱스, 스펜본드, 산업용 직물 등이 있다. 고분자소재 사업분야로는 폴리에스터 필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산업용 칩, 에폭시 수지 등 다양한 제품 생산으로 생활의 편리를 가져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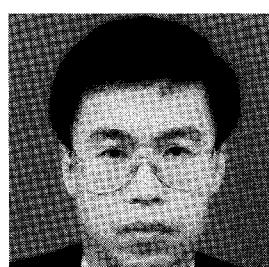
지난해 매출액은 5,011억여원으로 이 가운데 수출 비중이 약 60퍼센트에 이른다.

본사: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150

TEL: 772-6401 FAX: 751-8465

공장: 경북 경산시 중산동 1 / 경북 구미시 공단동 287

(주)신흥화공



▲ 신흥화공 김종훈 대표

주식회사 신흥화공(대표 김종훈)은 1989년에 회사를 설립, 비교적 단기간에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식품포장지 생산 전문 업체이다.

신흥화공은 젊은 사장을 중심으로 포장의 고급화 추세에 맞추어 새로운 포장재에 포장지를 납품하는 한편 홍콩 및 필리핀 등지에도 일부 포장재를 수출해 좋은 평을 받고 있다.

주요 포장재 생산제품으로는 육가공제품용 진공포장지, 스낵용 포장지, 쇠핑백용 부직포백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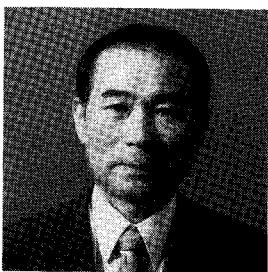
지난해 매출액은 28억여원으로 이 가운데 수출 부분이 약 15퍼센트에 이른다.

본사 및 공장: 인천직할시 북구 효성동 336-4

TEL: (032) 548-6001~3 FAX: (032) 548-6004

KOPAC NEWS

우신산업사



▲ 우신산업사 황창우 대표

정부에서 한창 분식을 장려하던 60년대 후반부터 라면업체가 우후죽순처럼 설립되었는데, 이런 여건 아래서 72년에 설립된 우신산업사(대표 황창우)는 라면포장지 생산납품을 시작으로 20여년간 연포장 그리비아인쇄 업계의 길을 걸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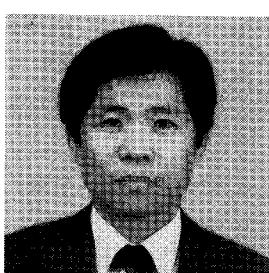
우신산업사 황창우 대표는 ▲정확한 제품 생산 ▲납품날짜 염수 ▲지속적인 기술 개발 ▲덤핑경쟁 지양 등을 기업운영의 모토로 삼고 있으며, 우리나라 포장산업 발전에 일조를 한다는 긍지를 가진 포장인이다.

주요 포장재 생산품목을 살펴보면 제과용 포장재, 진공포장을 비롯한 식품용 포장재, 제약용 포장재 등이 있으며, 기타 산업용 그리비아인쇄 포장재가 있다.

92년도 매출액은 약 10억원이다.
공장: 경기도 포천군 내촌면 진목2리 547-1
TEL: (0357) 34-5777 FAX: (0357) 34-5888

서울사무소: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338-18
TEL: 960-0211, 966-5777 FAX: 967-8802

태광산업(주)



▲ 태광산업 김용현 대표

태광산업주식회사(대표 김용현)는 특수 종이기공 업체로 접합알루미늄박지(금·은지)를 주로 생산하고 있다. 금·은지 중에서도 특히 마닐라 금·은지를 생산, 고급 미장박스 원지 수요를 충족시켜오고 있다.

미장박스의 '석기시대'라 할 수 있는 1971년도에 개인회사로 출발하여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난 86년도에 법인기업으로 발돋움했다. 이후 금·은박지 생산 일변도에서 펄(PEARL)지, 폴리에스텔 증착금지, 엠보싱지 등 생산 품목을 다양화하고 시설도 대폭 확장했다.

초기 수요는 화장품, 인삼제품 등 일부에 그쳤으나 최근 들어 일반 소비재 까지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양주, 도자기, 치약, 비누 등 수요 선이 다변화되었다.

특히 최근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대해진 배경에서 재생 가능한 크린(CLEAN) 금지 개발에 성공하여 일부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수요가 더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크린금지 개발에 이어 비닐코팅(PE)을 대체할 수 있는 방습지를 개발했다. 이 제품은 무색, 무독, 무취의 수성코팅제를 코팅한 방습지로서 가루비누 상자, 김 상자, 설탕과 마른멸치 등 식품포장에 획기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광산업(주)은 지난해 약 38억여원의 매출고를 기록했다.
본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269-5
TEL: (032) 676-7111 FAX: (032) 676-7115